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18. 1. 11(금) 총 2매(본문2)		
담당 부서	해외건설 지원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명섭, 사무관 김준영, 주무관 오은숙 • ☎ (044) 201-3530, 3531	
	도시경제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정희, 사무관 임정환 • ☎ (044) 201-4878	
	철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윤상, 사무관 구승범 • ☎ (044) 201-4643	
보 도 일 시		2019년 1월 1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13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한-폴란드·스페인, 철도·지능형도시 인프라협력 맞손 14일 민관 합동 협력단 파견...국제철도 협력방안 수주지원 다각화 논의

-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인프라(기반시설) 협력단을 1월 14일(월)부터 18일(금)까지 폴란드, 스페인에 파견한다.
 - 이번 협력단은 단순 시공사업 도급에 대한 수주지원을 넘어 철도·지능형도시(이하 스마트시티) 협력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,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.
- 우선, 철도강국이자 유라시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폴란드를 방문,
 - OSJD 의장 면담을 통해 현재 우리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고, 지난해 6월 OSJD에 새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회원국으로서 활동방안과 우리나라와 동기구 간 협력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.
- 세계적인 건설기업인 ACS社, Ferrovial社, Acciona社 등을 보유한 스페인을 방문,

- 스페인 개발부장관과의 면담, 주요 건설기업 간 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을 통해, 우리 건설기업과 스페인 건설기업의 장점*을 살려,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.

* (우리나라 건설기업) 시공능력 및 중동·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에 강점
 (스페인 건설기업) 설계·운영 및 유럽·중남미 지역 네트워크에 강점

- 아울러, 올해 9월 개최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이사국 총회를 대비하여, 이사국(파트Ⅲ) 선거에 대한 폴란드 측의 지지를 요청하고, 오는 5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OECD 국제교통 포럼(ITF) 교통장관회의 홍보에 나선다.

- 또한, 한국인프라도시개발공사(KIND)는 스페인 금융공사와 양국 기업들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건설금융 협력 업무협약(MOU)를 체결할 예정이며,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협회는 양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(Know-how)를 공유하기 위해 카탈루냐 투자 무역개발청과 업무협약(MOU)도 병행 체결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시공업체 도급에 대한 수주지원을 넘어, 철도·공항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, 이번 협력단을 계기로 향후 기반시설 국제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- 아울러,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철도협력 필요성, 중국 건설기업의 저가 수주전략에 따른 우리 건설기업의 전략 다변화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 건설지원과 이성훈사무관(☎ 044-201-35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